

#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 43만531명

국민연금공단,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 공개

2020년보다 늘어…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증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021년 국민연금 수급자 통계를 공개하며 월 1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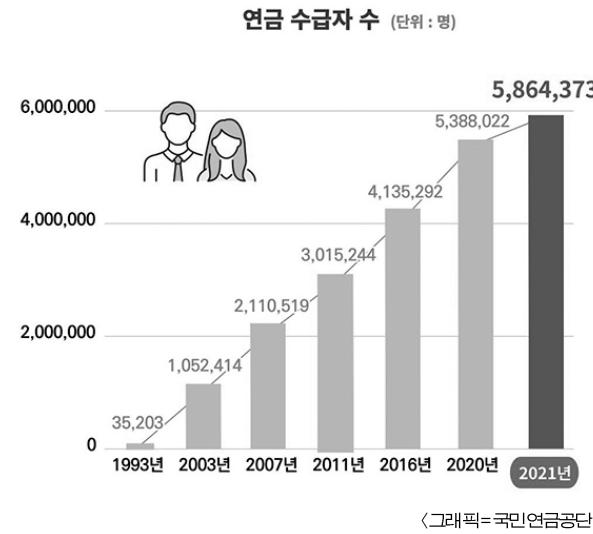
금액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월 100만 원 이상 수급자는 43만531명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007년 최초로 등장해 2016년 10만명, 2018년 20만명, 2020년에는 30만명을 넘어섰으며, 1년 만에 다시 40만명을 돌파했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의 경우도 2020년 437명에서 2021년 1,356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 공단은 2021년도 한 해 총 67만명의 수급자에게 29조1,400억 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으며, 수급자는 전년 대비 48만2,000명 증가해 총 연금수급자는 586만명, 일시금 수급자

는 21만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금 종류별 최대 수령액은 노령연금 240만 원, 장애연금 172만5,000원, 유족연금 119만4,000원, 부부 협찬 최고 연금액은 435만4,000원이다.

부부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20.7% 증가해 50만 쌍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0만 쌍 2020년 40만 쌍 2021년에는 50만 쌍을 돌파하는 등 해마다 10만 쌍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부 수급자 협찬 최고액은 월 435만4,000원으로 평균 연금액은 85만 6,000원으로 나타났으며, 30만 원 이상 부부 수급자는 2018년 6쌍이 최초로 발생했고, 3년 만에 196쌍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지역별 인구 대비 수급자 통계에 따르면, 100세 이상 연금수급자는 117명이며 이중 여성이 77.8%(91



그래프=국민연금공단 제공

명)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령 수급자는 108세 여성으로서 국민연금 기입자였던 자녀가 사망함에 따라 1994년부터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이어서 노령연금 최고령 수

장 높고 다음으로 경북, 전남, 제주, 경남 순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2세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540만 9,000명으로 62세 이상 전체인구 대비 4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2.5%, 2019년 44.1%, 2020년 46%로 연금수급 개시 연령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입 기간별 노령연금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전년 대비 24.1% 증가한 103만9,680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4만 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 40만 4,907명에서 제도가 민트워크에 따라 5년 전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3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 6,000명, 월평균 연금액은 142만2,000원으로 나타났으며, 기입 기간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375만 9,000명, 월평균 연금액은 월 55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최대희 기자



aT김춘진 사장, 비축기지  
수급 관리·시설 점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공사 전주비축기지를 방문해 비축시설의 안전과衛생관리를 살피고 농산물의 품질 등 수급 관리 상황을 16일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춘진 사장은 “전주비축기지는 노후화되어 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시설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비축농산물의 품질관리와 선제적 수급 관리로 비축물을 원활한 공급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하고 중대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대희 기자

## 디지털 농업, 조기에 현장에서 구현

농업용 로봇 개발·상용화 등  
농진청, 10대 추진과제 선정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한데 모은 디지털 기술은 전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는 반면, 선진 농업국가에 비해 국내 디지털농업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해결책으로 농촌진흥청은 디지털 농업을 조기에 농업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16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호)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사회·경제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선진 농업국가는 농업 전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이를 통해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농업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에도 불구하고 일부 온실이나 사물인터넷이 유통되는 등 데이터가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진청은 2021년 3월에 데이터 기반 과학농업 실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농업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 분야에 활용하는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농업 분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병호 농촌진흥청장이 16일 0브리핑을 통해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농업 분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0대 핵심과제는 ▲스마트팜 최적환경제어 시스템 고도화 ▲노지 정밀농업 시스템 개발 ▲농업용 로봇 개발·상용화 ▲농업기상 예보 및 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 확대 ▲인공지능 병해증 진단 서비스 보급 ▲가축 관리 및 질병 조기탐지 서비스 실용화 ▲디지털 유통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농업경영 진단 서비스 구현 ▲디지털기반 농촌공간 재생 모델 개발 ▲농업기술 안내 첫봇 서비스 개발을 선정해 수행한다.

아울러 이번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인공

지능 ▲로봇/자율주행 ▲드론/위성 ▲메타버스/디지털 트윈 등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진청은 10대 핵심과제 등 디지털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올해에 878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박병호 청장은 “농업분야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고 많은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 농촌을 구현하는데 앞장 서겠다”며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장을 위해 관련분야 우수한 연구자·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대희 기자

## 예담채 양파 소비 촉진, 농가 돋는다

전북농협·전북도, 전주유통 하나로마트 등서 행사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이달 27일까지 전주유통 하나로마트 및 수도권농협 판매장 등에서 전라북도 예담



채 양파 소비촉진행사’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NH농협은행과 우리

농업자기기반동본부에서 후원하고, 전북도와 전북농협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예담채 양파 상생마케팅으로 양파(15kg) 한 막당 4,500원을 할인(농협카드할인 포함)해 3,500원에 판매한다.

여기에 더해 NH농협은행과 우리농업자기기반동본부는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양파의 소비촉진을 위해 3,000만원의 상생협력자금을 후원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양파 가격하락

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을 돋기 위해 상생마케팅을 진행

하게 됐다”며 “양파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우리 농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끼려 농가의 경영이 안정화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상생협력의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이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농산물 상생마케팅’은,

기업의 후원을 통해 농업인은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산값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으며, 기업은 광고효과와 사회공헌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인·소비자·기업간 상생협력 프로그램이다. /김윤상 기자

## 전북지역 고용률, 자영업·소상공인 위주로 ↑

제조업 등 기간산업 고용자는 ↓

전북지역 고용률이 상승하고 고용여건이 개선됐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에 따른 자영업 고용의 일시적인 상승으로 보인다.

직업 훈련의 기회와 구직자 간 기업의 매칭 확대 및 도내 기업 유티 등을 통해 도내 고용 안전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전주사무소가 16일 발표한 2022년 2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라북도 고용률은 60.0%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AEC비교기준)도 65.1%로 0.2%p 상승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68.9%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했으나, 여자는 51.3%로 전년동월대비 1.5%p 상승했다. 또한 취업률은 93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00명(0.5%)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000명(-1.3%) 감소했으나, 여자는 40만6,000명으로 1만2,000

명(3.0%) 증가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2만5,000명, 15.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9,000명, 5.8%)에서 증가했으나,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8,000명, -20.8%), 농림어업(-1만1,000명, -6.9%), 건설업(-7,000명, -9.5%), 제조업(-2,000명, -1.3%)에서 감소했다.

직업별로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2만3,000명, 13.4%), 사무종사자(1만2,000명, 10.3%)에서 증가했으나, 관리자·전문가(-1만8,000명, -8.0%), 농림어업숙련종사자(-1만2,000명, -7.4%),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6,000명, -1.8%)에서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일금근로자·증임시금근로자는 8,000명(-21.3%) 감소했으며,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7,000명(2.6%) 증가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4,000명(-5.9%) 감소했다.

LX, 음부즈페슨 위촉

LX한국토정보공사(상임감사 성기청)는 투명경영 실현을 위한 2022년도 LX음부즈페슨을 위촉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LX음부즈페슨은 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제언을 위한 전문 그룹으로, 새롭게 위촉된 신태용(전죽), 위원을 비롯해 안준수(세무), 여원천(지적민원), 이계인(감정평가), 최행식(법률), 한민희(IT), 한정우(감사) 등이 활동을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LX 반부패·청렴 혁신방법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안준수 위원장은 “윤리경영은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원찬 위원은 “LX가 청렴경영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심층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청렴 체크리스트 고도화, 지속적 자가진단을 통해 내부 통제를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계인 위원은 “LX는 규정·제도 등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운영이



되지만 지속적 점검과 관리를 계획리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참여형 준법 감시활동 확대 운영 등 다른 기관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LX민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행식 위원은 “관리자의 솔선수범 리더십과 직업윤리가 중요하다”며 “전문성·윤리성 검증, 책임 강화 등이 시스템으로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민희 위원은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다”며 “사업·조직·인사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책임윤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기청 상임감사는 “반부패·청렴은 LX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대국민 소통창구로서 음부즈페슨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해 공정성·투명성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지방식립청(정장 권장현)은 올해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도와 사방댐 및 계류보전 등의 신립토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및 집중호우가 빈발해 인명사고와 주택파손, 농경지 매몰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임도는 산림보호와 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며,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 하류 지역의 민가와 농경지, 도로 등의 피해를 막아주는 재해방지용 시설물이다.

이와 관련, 서부지방식립청은 올해 경제임육단지 등을 중심으로 임도 69km를 신설하며, 인명피해 방지是为了 지도·감독에 철저히 기관화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최대희 기자

서부산림청, 216억 투입

산림토목사업 추진

서부지방식립청(정장 권장현)은 올해 21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도와 사방댐